

시연施連칼럼

조선 관료사회의 부패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파회장

지난 7년간 안동권씨 좌윤공파 현조(顯祖) 실록(實錄) “좌윤공 사람들”을 편찬(編纂)하면서 크게 느낀 점이 부패(腐敗)의 카르텔이다. 조선후기(朝鮮後期)로 갈수록 극에 이르다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에 사라진다.

고종(高宗) 31년(1894년) 4월에 발행된 진사(進士) 입격(入格) 통지서에 적힌 내용이 이같은 사실을 증명한다. 좌윤공파(佐尹公派) 사정공(司正公) 후손이신 유태(幼學) 권규운(權圭運, 3등 입격)의 고지엔 무려

703명이 진사로 입격했다. 권규운 공은 3등을 했으나 문제가 없겠지만 적어도 100명 이후 합격자부터는 넘세가 짙게 풍긴다.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나타난 생원 진사 합격자는 조선(朝鮮) 중기까지 만해도 60인을 잘 넘기지 않았다. 선조(宣祖) 38년(1605) 증광(增廣) 시에서는 임란의 병장과 전진 현감을 지내신 권응생(權應生, 3등 입격) 등 45명이 입격(入格)을 했으며 광해(光海) 5년 1613년 증광시에서도 권응립(權應立, 3등 입격)과 3등 합격자 64명에 그쳤다.

100년을 건너뛰어 1713년 숙종(肅宗) 39년에 치른 진사시에서 영남 유학 권도주(權道樞) 공이 입격 했을 때도 39명이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다 조선 말로 들어서면 급격하게 불어나 생원 진사 시험의 마지막이라 할 1894년 고종(高宗) 31년 시험에서는 915명이 입격했다.

실제로 한마을 같은 서당에서 공부했던 두 유생(儒生)이 고종(高宗) 31년 진사시를 보기 위해 한양에 갔으나 한 분은 금품을 요구하는 관리들의 손을 뿌리치고 귀향길에 올랐으나 이 유생으로부터 돈을 벌린 분은 보기 좋게 입격을 했다. 귀향 후엔 마을이 두 쪽으로 갈라지기도 한다. 또 진사라 할지라도 벼슬길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당시 사회 모습이었다.

조선시대(朝鮮時代) 관찰사는 지방 관직으로는 으뜸으로 친다.

새로 부임한 관찰사(觀察使)의 재산·증식의 방법은 군(郡) 현(縣)에서 감영(監營)에 바칠 세금은 고식 대신 미리 정해 둔 현금으로 낼 것을 지시한다. 이를테면 고식 열 막이면 돈으로는 2백 낮다. 장터 시세보다 물론 높고.

순진스런 백성이 현금 대신 고식 10 막을 지고 관아(官衙)로 가면 눈을 부리는 아전이 현금으로 가져오면서 돌려보낸다. 이렇게 받은 엽전은 이듬해 보릿고개가 달치면 그 중 한몫을 고식 10 막의 반값이라며 꾸어주고 가을 추수기가 지나 쌀이 흔해지면 애속하게도 돈으로 받지 않고 알곡으로 받아 창고에 쌓아두는 수법을 쓰니 백성은 죽어나고 관리의 배는 더 부풀어 지게 된다.

관찰사(觀察使)의 돈벌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조선시대(朝鮮時代) 가장 흔했던 묵지 분쟁에서는 불문고직하고 귀양을 보내고 벌금을 받는다. 소를 밀도살 경우도 그렇다. 당시 관찰사는 목청이 좋다는 우스개 소리의 어원은 사건마다 동현이 찌렁찌렁 울릴 만큼 소리를 질러대면 아첨하기 좋아하는 이숙(吏屬)들이 갖가지 구실을 붙여 엽전을 쟁간다. 이러니 토호(土豪)와 간리(奸吏)가 풀어내는 방법이 한 통속이니 관찰사는 이들의 비리를 알아도 깨발리지 못한다.

대과(大科)에 합격하지 못했어도, 읍지(蔭職)으로도 벼슬길에 나갈 수 있으니 그 뜻은 한양의 재상에게 당연히 올라가는 상납 고리가 형성된다. 물 좋은 곳 부사(府使)나 관찰사(觀察使)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집안끼리는 며느리와 사위를 주고받으며 그물망 같은 혼반(婚班)을 엮는 귀신(鬼神)이 꼭 할 재주가 배웠다. 이런 그물망이면 과거(科擧)도 쉽고 좋은 자리도 쉽게 굽어들어오는 연동체다.

조선(朝鮮) 후기시대를 살았던 문신(文臣)이나 실학자, 철학자였던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감사론(監司論)에 나오는 지적이다. 다산은 “관찰사(觀察使)란 대도(大盜)는 야경꾼이라 하더라도 감히 누구나 묻지도 못하고 의금부(義禁府)나 암행어사(暗行御史)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감사론(監司論) 말미에서 밝혔다.

요즘도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형태만 조금 다를 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패의 카르텔이 횡행하고 있다. 하긴 대통령을 지내고 구속까지 되었어도 대수롭잖게 여기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이다. 경상도 장기 땅에서 이곳 백성들이 차린 도다리 국을 하루도 빼지지 않고 먹었던 100일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전라도 강진 땅으로 이배(移配)한 정약용(丁若鏞)이 살아나오면 얼마나 놀랄까.

안동권씨 울산종친회 한마당 큰잔치



안동권씨 울산종친회 한마당 큰잔치가 5월 20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울산종친회 회장과 함께 참석한 가운데 안동권씨 울산종친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한마당 큰잔치는 지난 4월 23일 제32회 청장년전국체육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보답으로 이루어졌고 권용목 울산청장년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마당 큰잔치인 만큼 이날 행사는 식순을 간소화하고 인사말과 체육대회 경과보고만 간략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즐겁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체육대회장인 권명달 울산청장년회 회장은 코로나로 3년간 미루어왔던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울산 종친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에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며 울산종친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 큰절까지 하였다.

이어서 권명호 국회의원(울산동구)은 인사말에서 몸은 함께

하지 못해 마음만은 항상 울산종친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울산종친이 계셨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며 울산종친들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권혁환 체육대회 준비위원장이자 울산종친회 사무처장은 체육대회 경과보고 및 협찬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을 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부담을 드리기에 죄송한 마음이 깊었지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과분한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청장년 회원과 부인회원들이 단상으로 나와 울산종친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큰절을 하였다. 이날 울산 청장년회는 성공적인 체육대회를 자축하고 울산종친의 화합을 다지는 건배로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행사는 체육대회 진행을 해온 최우근 사회자의 진행으로 친목과 화합의 시간인 노래자랑으로 즐거운 한마당을 열어갔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25>



권감현 편집위원장

〈동계집〉은 동계(東溪) 권도(權濤, 1575~1644) 공의 시문집으로 원집 8권, 연보 3권, 총 4책의 목판본이다.

공은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 23세로 복야공파(僕射公派)이다. 자(字)는 정보(靜甫), 호가 동계이며, 시호(謚號) 충강(忠康)이다. 부친은 증좌승지 윤현(栗軒) 권세준(權世春, ?~1593)이다.

공은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와 여현(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석담(石潭) 이윤우(李潤雨, 1569~1634), 학호(鶴湖) 김봉조(金奉祖, 1572~1630), 사호(思湖) 오장(吳長, 1565~1617) 등과 교유하였다.

1601년 27세에 진사에 합격하고, 1613년 29세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1616년 여름에 성균관 학우가 되었으나, 나라가 어지러워 나아가지 않고 경상도 단성(丹城)에 동계정사(東溪精舍)를 짓고 은거하였다.

1623년 3월에 인조반정이 있은 뒤, 승정원 주서를 거쳐 예문관 겸열을 역임하였다. 1624년 2월에 이괄(李括, 1587~1624)의 난을 당해 인조(仁祖)를 호종(扈從)하여 공주(公州)로 피란을 다녀왔으며 3월에 원종훈(原從勳)에 녹훈(錄勳)되었다.

1627년 2월에 후금(後金)이 침입하자 인조를 호종하여 강화(江華)로 피란하였다. 경상우도(慶尚右道) 도운여사(督運御史)가 되고 이어 장령, 부수찬, 집의가 되었다. 1628년 1월에 영사원종공신(寧社原從功臣)에 녹훈, 2월에 사간, 5월에 흥양(興陽) 현감으로 좌천되었다. 9월에 사간원 사간으로 돌아오고, 11월에 사복시정(司僕寺正)이 되었다.

1632년 4월에 사직(削職)되어 해남(海南)에 유배되었다가 1633년 8월에 해배(解配)되어 향리로 돌아왔다. 1636년 12월에는 호란(胡亂)이 일어나자 관찰사 심연(沈演, 1587~1646)의 진영(陣營)에 달려가 군무(軍務)를 돋기도 하였다. 1640년 4월에 병조참지, 좌승지, 10월에 대사간을 지내다가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왔다.

사후인 1645년에 이조판서에 추증(追贈)되고, 1672년에 도천(道川) 서원에 제향되었다. 1788년에 완계(浣溪) 서원에 제향되고, 1825년 10월에 충강(忠康)의 시호(謚號)를 받았다.

공의 유문(遺文)은 3차례의 화재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의 현손 권대호(權大庶, 1749~?) 등이 불에 타고 남은 글을 수습하고 공의 벗들 후손 집에서 일부를 찾아내어 2책으로 편집한 후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교감을 받고, 여기에 공의 세계도(世系圖), 연보, 행장, 신도비문(神道碑文) 등을 1책으로 묶어 합하여 1808년 완계서원에서 원집 5권, 연보 3권, 총 3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초간본의 발문은 1809년 봄에 김평(金塏, 1739~1816)이 지었다.

1875년에는 8세손 권용성(權龍成, 1805~1879) 등이 초간본의 체제를 따르되 연보 중의 중복된 기술은 산삭하는 한편, 내용을 증보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원집 8권, 연보 3권, 총 4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책마리에 1809년에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 1738~1816)가 지은 서문이 있다.

권1은 5언시(五言詩) 49제(題), 권2는 7언시(七言詩) 109제이며, 시대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권3은 만(挽) 65제, 부(賦) 7편이다. 만사는 스승이나 벗에 대한 것이다. 부(賦) 가운데 〈요건복중원(要見復中原)〉은 1638년에 지은 것으로 오랑캐(청나라)에 짓밟힌 명나라의 회복을 기원하지만 힘이 없는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이다.

권4는 교서(教書) 2편, 소(疏) 10편, 차자(劄字) 1편, 계사(啓辭) 12편이다. 권5는 서(書) 50편으로 사우(師友) 및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권6은 잡지(雜著) 6편, 잡(箴) 3편, 책문(策問) 1편, 표전(表箇) 2편, 전문(箇文) 1편이다. 권7은 축문(祝文) 6편, 제문(祭文) 22편, 묘지명(墓誌銘) 2편, 묘간명(墓碣銘) 5편, 행장(行狀) 1편이다.

권8은 친구들의 이별시(離別詩) 16제와 친구 편지 28편이다. 원집 끝에는 1809년에 구(龜窟) 김평(金塏, 1739~1816)이 지은跋문이 있다.

연보의 권1은 저자의 연보로서, 1575년 저자의 출생부터 1824년 시호를 받은 사설까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권2~3은 부록으로, 권2에는 공에 대한 만장, 제문, 그리고 도천서원과 완계서원의 봉안문·상향문(常享文), 완계서원 상량문, 〈단구지(丹丘誌)〉의 기사(記事)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3에는 대산 이성정이 지은 행장, 번암(樊巖) 제재공(蔡濟恭, 1720~1799)이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 연천(淵泉) 김이양(金履陽, 1755~1845)이 지은 시장(謚狀)이 수록되어 있다. 문집 끝에는 1875년에 후손 권용성(權龍成, 1805~1879)이 지은 중간(重刊)跋문이 있다.

다음은 선달 그믐날 밤에 지은 것으로, 당시 나라가 어지러워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아 새벽 첫날 울기를 기다렸다는 내용이다.

國步危如線(국보위여선) 나라가 외줄 위 걷듯 위태로운데

窮陰逼歲除(궁음핍세제) 한 해 다 가고 선달그믐 밤이네

孤臣渾不寐(고신흔불매) 외로운 신하 밤새도록 잠 안 와

倚壁聽晨雞(의벽청신계) 벽에 기대어 첫닭 울기 기다렸네

동계집(東溪集)

다음의 여덟 수는 공이 58세 때인 1632년에 전라도 해남(海南)에 귀양 갔을 때 교유한 양정(養亭) 정봉(鄭鋗, 1577~1635)이라는 선비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공은 이 시에서 귀양살이하면서 외로운 심정, 임금님을 그리는 마음, 고향집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 찾아온 해남 선비와 작별할 때의 괴로움, 나라가 오랑캐 손에 들어가지나 않을까하는 걱정 등을 읊고 있다.

1 地僻晉音斷(지벽공음단) 외진 곳이라 찾아오는 사람 없어
身閒午夢遲(신한오몽지) 몸이 한가하여 낮잠도 오지 않네
思君不可見(사군불가견) 임금님을 생각해도 뛸 수 없으니
愁絕夕陽時(愁絕夕陽시) 해가 질 때면 너무나 시름겹다네

2 鳥聲和夢斷(조성화몽단) 새소리 화평하여 꿈 끊어지니
花影下簾遲(화영하簾지) 꽃그늘 보려 주렴 내리지 않네
閉戶攬愁緒(폐호란수서) 문 닫자 근심걱정 어지러운데
綠楊三月時(녹양삼월시) 베드나무 한창 푸른 삼월이네

3 風細花飛穩(풍세화비온) 꽃은 한들한들 바람에 날리고
泥乾燕語遲(밀건연어지) 재비는 진흙이 말라 울지 않네
光陰如箭疾(광음如箭지) 세월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
又屬錢春時(우속전춘시) 또 봄을 보내는 때가 되었네

4 老去春無力(노거춘무력) 늙어가니 봄인데도 기력이 없어
慵眠欲起遲(용면욕자우) 일어나지 않고 늦잠 자고 싶네
夢中成一笑(몽중성일소) 꿈속에서 한바탕 실컷 웃으며
重見太平時(중견태평시) 태평한 시대를 다시 보았다네

5 地盡江南客(지진강남객) 땅이 끝난 곳 강남 나그네가
天傾杞國憂(천경기국우) 하늘 무너질까 랜히 걱정하네
堪憐海外客(감련장해외) 습한 바다 바깥도 서러운데
消息又經秋(소식경추) 인부편지 또 가을 지나겠네

6 故國家千里(고국가천리) 고향 집 천리 먼 곳에 있어
天涯身百憂(천애신백우) 하늘 끝 이 몸 온갖 근심에
夢魂漣欲斷(몽흔호육단) 꿈이 완전히 끊어지려하니
寥落不宜秋(요락불의추) 등당 썰렁한 가을 아니로다

7 寂坐聊收視(寂坐려시) 고요히 앉아 눈길 거두고서
哦詩欲寫憂(아시욕사우) 시 읊고 시름 풀고 싶은데
別來心正苦(별래심정고) 작별하니 마음 정말 괴로워
一日當三秋(일일당삼추) 하루가 마치 삼년과 같다네

8 衡風挾雨聲(충풍협우성) 세찬 바람 빗소리 함께 오니
山岳勢疑傾(산악세의경) 큰 산이 뒤집히는 형세라네
不恨三重捲(불한삼중권) 세 번 휘말린 것은 괜찮으나
翻愁虜陣成(번수로진성) 오랑캐에 짓밟힐까 걱정이네

寂坐 其一	聊收視 其